

---

#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거는 기대와 과제

최미숙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1. 우리 국어 능력의 현주소

다음은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 씨의 경우다. 모 씨는 매일 국어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글을 읽고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 태어나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웬만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말을 익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그 어느 과목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국어를 배우고 시험을 치르면서 국어 능력을 연마(?)했다. 대학에 가서도 ‘교양 국어’라는 강좌를 통해 ‘교양 있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마무리 과정 또한 이수했다.

과연 이러한 모 씨에게 새삼스럽게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필요한 것인가? 초·중·고 정규 교육을 모두 마치고 어엿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혹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 능

력 검정 시험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자. 성인이 되기까지 몇 십 년을 국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국어 능력 검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새삼 왜 국민을 위한 국어 능력 검정인가? 그것은 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딘가 생똥맞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공부, 책 읽기보다 외국어 공부가 필수인 세상이다. 눈뜨고 일어나면 생기는 것이 외국어 학원이고, 방학이면 해외 어학 연수를 위해 장기간 학교 결석도 마다 않는다. 영어 학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사적인 대화조차도 영어로 말하는 학원일수록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모 영어 학원은 우리말을 몇 번 계속해서 하면 쫓겨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던 우리 조상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이런 마당에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라니……, 생똥맞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얼마 전 회사 신입생들의 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떨어진다는 신문 보도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다. 취업 희망자들의 국어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영어보다 국어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원자들 대부분이 16년간 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과정부터 영어 교육에 목매달면서 영어식 표현과 영어식 사고를 강조한다. 부정하려고 해도 영어식 표현과 영어식 사고는 자연스럽게 우리 국어 표현과 사고를 조금씩 밀어내면서 자리를 차지한다.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노라는 기사는 나와도, 우리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기삿거리도 되지 않는 세상이다. 집만 나서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외래어 간판은 지적하는 것조차 식상할 정도며, 수시로 등장하는 영어 마을, 영어 캠프 등 각종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영어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전달하고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갖는 비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어 못지않게 우리 국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을 개탄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16년간의 국어 교육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보다 국어 능력이 모자란다고 했던 보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 초기에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받침을 없애거나 어미를 줄이는 방식으로 등장했던 통신 언어는 이제 외계어 수준으로까지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적 불명의 언어를 양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논쟁에서 자주 보는 욕설과 인신공격성 표현 등 이런 모든 현상은 우리 국어 능력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국어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민하거나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어기본법의 문제의식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국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2. 과연 국어 능력 검정이 필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마치면서 국어 교육을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국어 교육은 그것으로 충분한가? 모두들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듯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해 엄청난 불이익을 보거나, 기슭속에서 이는 일상적인 감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해하거나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약품 설명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번역투로 일관하고 있는 책을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한다. 유네스코는 우리 한글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우리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이며 정보화 사회에 매우 유용한 문자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국어 생활은 그것과 한참 멀리 있는 듯하다.

이제 곧 국민을 위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국어 능력이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하는 데에는 물론 성인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성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정보의 가치 판단하기, 정보 비판적으로 읽기, 직무와 관련된 자료 읽고 추론하기 등(노명완·이형래, 2005: 90)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에 의하면, 고학력의 성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16세~65세)의 문해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 영역 중 문서 문해 영역이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이희수 외, 2001).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 어려움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신력 있는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성인이 되고 나면 개인적인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 나의 국어 능력이 어떤지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어떻게 노력해야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실시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가 그토록 지겨워하던 시험을 또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지도·조언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취업

준비를 위해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침 역할을 할 것이며, 자신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무심히 넘겨 버리던 각종 외래어나 외국어 교육 열풍, 인터넷 통신 언어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언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국어를 홀대하는 생활에 대해 무심하다면 우리 국어의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우리는 이런 국어 능력 평가를 기대한다.

우리들은 12년간 학교에서 이루어진 시험 상황을 기억한다. 거기에는 연필과 지우개만 허용된 빈 책상과 정해진 시험 시간,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교실, 그리고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들을 감시했던 시험 감독 선생님이 있다. 그런 평가 상황에서 학생들이 해야 했던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답을 골라내어 표기하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평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선택형 평가, 소속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서열을 강조하는 상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로는 국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점수와 석차만으로 만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얼마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수행 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수행 평가의 실시와 함께 평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시험 형태와 과제 평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과 평가

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어 교육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예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 실시되는, 국민을 위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대위 평가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아직 역부족일 것이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평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 3.1.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어 능력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국어 능력은 단순한 차원의 의사소통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던 사회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주체적·창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표현하는 능력, 나아가 언어문화 창조 능력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언어 능력은 단지 한 개인의 삶의 질적인 고양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듯 국어 능력은 개인의 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쟁력, 나아가 공동체의 삶과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 있는 지식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식 자체보다는 그 지식을 다양한 언어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다양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점차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 3.2. 국어 능력을 위계화한 평가 틀 구안

시험을 보는 사람에 따라 중·고등학생용, 일반용 등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기보다는 국어 능력을 위계화하여 평가 틀을 구안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그래야 국민을 대상으로 일관된 수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어기본법에서 명시한 국어 능력 관련 자료 수집 및 실태 조사에도 용이하다. 사실 국어 능력 평가는 중·고등학생용과 일반용의 구분이 어려울뿐더러, 중·고등학생이 일반인보다 국어 능력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 누구나 원한다면 나이와 학교 급에 상관없이 평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국어 능력을 위계화한 방식으로는 ‘기초 수준, 숙달 수준, 전문적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로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기초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 숙달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 전문적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이 경우 기초 수준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숙달 수준 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숙달 수준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문적 수준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한다. 각 수준별 평가의 성격과 평가 대상을 구안해 보면 표1과 같다.

[표 1] 국어 능력 평가의 종류(안)

평가의 종류	평가의 성격	평가 대상
기초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일상적 언어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즉 일상인으로서 국어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일반인 등
숙달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전문 직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국어 외 과목 교사, 기업 회사원, 일반 공무원, 군인, 일반 기업체 직원, 대학생 등
전문적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국어 관련 직업이나 전문 기관에서 국어 및 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거나 기타 전문 기관에서 전문 영역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고차원적인 수준의 국어 능력 평가	대학원, 언론인, 방송인, 국어 관련 연구자, 국어 교사, 고급 공무원(외교관 등), 법조인, 의사, 기업 지도자 그룹, 각 기관 홍보 담당자 등

이제 평가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각 수준별 행동 특성을 기준 형태로 상세하게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평가인 PISA<sup>1)</sup>에서 활용한 읽기 능력의 수준별 행동 특성을 참고하되, 등급 판정 기준을 따로 첨가하여 예로 들어 보면 표2와 같다.

여기에서는 읽기 능력의 세부 영역을 ‘정보 확인’, ‘해석’, ‘비평적 고찰’ 능력으로 나누고, 각 세부 영역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눈 후 각 등급별로 읽기 능력의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물론 등급은 이보다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 5~10등급까지 나눌 수도 있으며, 더 세분화된 등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정을 실시한다면, 등급 판정이 났을 때 자신의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하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

1)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평가’로,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약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OECD가 주관하는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평가 결과를 원하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로 각국 인적 자원의 수준을 읽기 능력, 수리적 능력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PISA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98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OECD의 경계를 넘어 약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학업 성취도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ISA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3년씩 세 번의 주기에 걸쳐 반복되며, 2000년에 1주기 평가, 2003년에 2주기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0년에 평가가 실시된 1주기에서의 주 영역은 읽기이고 수학은 과학과 더불어 보조 영역이었으며, 2003년에 평가가 실시된 2주기에서의 주 영역은 수학과, 읽기는 과학과 더불어 보조 영역이었다.

[표2] 읽기 영역의 등급별 행동 특성의 예(안)

	정보 확인	해석	비평적 고찰	판정 기준	
5등급	읽기 자료에 암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순서에 맞게 배열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찾아내어야 하는 정보 중의 일부는 읽기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읽기 자료에 제시된 정보 중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추론(분별)할 수 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은 정보들을 다룰 수 있다.	여러 가지를 함축한 언어의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읽기 자료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가설을 설정한다. 통념에 반하는 개념을 다룰 수 있으며 길고 복잡한 읽기 자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 수준	
4등급	이전에 많이 접해 보지 못한 내용의 읽기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들 정보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거나 통합(combine)시킬 수 있다. 읽기 자료에 제시된 정보 중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추론(분별)할 수 있다.	전에 접해 보지 못한 내용의 읽기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으며 범주를 적용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글의 다의성(ambiguity)이나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된 아이디어 혹은 통념에 반하는 아이디어를 다룰(처리할) 수 있다.	공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가설을 설정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길고 복잡한 읽기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숙달 수준	
3등급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며, 찾아낸 정보 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읽기 자료에 답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정보가 확연하게 제시되어 있어도 옳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읽기 자료의 몇 부분을 통합하여 주요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단어나 구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면서 비교, 대조 혹은 범주화할 수 있다.	읽기 자료의 어떤 부분을 연결, 비교, 설명, 혹은 평가할 수 있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지식과 연결하거나 덜 일반화된 지식을 동원함으로써 읽기 자료의 내용을 살살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기초-3 수준	기초 수준
2등급	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읽기 자료에 정보가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추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읽기 자료에 제시된 주요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단일한 기준을 설정, 적용하거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읽기 자료와 외부적인 지식을 연결하거나 비교할 수 있거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태도를 이용하여 읽기 자료의 어떤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기초-2 수준	
1등급	지문에 매우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하나 이상 찾아낼 수 있다.	친숙한 체계를 다룬 지문에 제시된 주제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주제나 저자의 의도는 매우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와 일상적인 지식을 결부시킬 수 있다.	기초-1 수준	

### 3.3. 실질적인 국어 능력의 평가

국어 능력을 제대로 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질적인 국어 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 능력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말하고 듣는 능력, 읽고 쓰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검정이 될 것이다.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 생겨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문직 채용 시 국어 능력 여부를 평가하려는 움직임 또한 일고 있다. (재)한국언어문화원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한국방송(KBS)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 시험’, ‘공직 적성 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의학 교육 입문 검사(MEET)와 ‘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DEET) 등이 그 구체적인 예다. 일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어 과목 존속 여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했던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험에 국어 과목 폐지가 거론되었던 것은 실상 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에 근거한다기보다 국어 시험 형태가 제대로 된 국어 능력 평가에 기여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논의(양명희, 2004)는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그 하나는 기존의 단순 암기식 문항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 중심이라는 점은 실질적인 국어 능력 평가에 다가가려는 중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국어 능력 평가에 접근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국어 능력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경우 ‘문법 능력’, ‘이해 능력’, ‘표현 능력’이라는 평가 영역 외에도 ‘창안 능력’, ‘국어 문화 능력’을 따로 두고 창의적 언어 능력과 국어 교과의 교양적 지식을 평가하고자 한 점은 높이 사야 할 부분이다. 다만, 창의적 언어 능력과 국어에 관한 교양적 지식이 과연 이해 능력 및 표현 능력과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어에 관한 교양적 지식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며, 창의적 언어 능력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이 목표로 삼아야 할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두 영역을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과 따로 평가한다면, 자칫 두 영역의 능력이 일상적인 국어 능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능력이라고 오해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평가 영역으로 따로 설정하기보다는 다른 영역 속에서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현존하고 있는 시험이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듣기 평가에서는 설명이나 연설, 강연, 대화 내용 등을 들려 주고 내용과 다른 것 혹은 내용과 유사한 것을 찾는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 듣기 활동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에 초점을 둔 문항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말하기 평가는 현재의 선택형 평가로는 평가하기 힘든 영역이다. 현재 한국어 능력 인정 시험에서는 높임법의 올바른 활용에 관한 문항이나 문장 안에서 특정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이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실제 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듣고 말하는 언어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설이나 강연을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한 후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토론 과정에서 해야 할 말 등에 관한 문항 등 좀 더 다양한 문항 유형을 개발해 보자.

한편, ‘공직 적성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논증 구조 분석’, ‘논리적 결함 찾기’ 등의 문항과 ‘의학·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의 ‘언어 추

리' 영역의 문항은, 평가 대상인 언어 능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일상적인 국어 능력이라기보다는 자칫 추상적인 논리 중심의 문항이 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을 위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과연 문학 능력이 필요한가 하고 질문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그동안의 시험이 보여 준 단순 지식 중심의 문항에 근거하고 있다. 단순한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 혹은 문학 능력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그동안의 문학 문항은 물론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나아가 문학을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 능력이야말로 간단치 않은 세상 만사를 이해하는 데, 단순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학 능력은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KBS 한 국어 능력 시험'에서처럼 따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각 영역 평가의 바탕을 이루도록 문항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 3.4. 다양한 국어 평가 도구 활용

국어 수행 중심의 평가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KBS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재단 법인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은 대부분 선택형 문항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문항으로 성인의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국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논술형 문항, 토론법, 구술법 등 국어 수행 중심의 평가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 평가 문항에서 활용하는 국어 자료는 문학 작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 책, 신문, 광고, 뉴스, 인터넷 자료 등 언어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실 수행 중심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필요한 특별한 도구나 장치의 구입비, 평가자의 훈련비, 평정비(또는 채점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단위로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채점 기준이 불명확하면 평정자의 편견이나 기대가 동일한 관찰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수행 과제 간의 내적 일치도 문제 등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특히 토론법, 구술법 등의 평가 도구는 미래에나 가능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국어 수행 중심의 평가 도구 활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현재 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이미 서술형 중심의 수행형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리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약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평가인 PISA에서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면 서술형 평가 정도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채점 기준이 필요하다.<sup>2)</sup>

예전처럼 단순 지식 중심의 선택형 문항, 단답형 문항 등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다. 현실적인 여건상 직접 말하고 듣는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면, 쓰기 영역에서라도 서술형 문항을 개발하여 이전과는 차별화된 평가 형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평가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 3.5. 영역별 평가 문항 개발 방향

말하기 능력을 실제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듣기와 말하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고, ‘어문 규범 및 어휘’ 능력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국어 능력에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이 영역을 새로운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에 따라서 ‘어문 규범 및 어휘’,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를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고 영역별 평가 문항을 개발해 보자. 네 개의

2)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최미숙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평가 도구 연구: PISA 읽기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어문연구』 125호)를 참고하기 바람.

평가 영역별 문항 개발 방향을 표3과 같이 구상해 보았다.

[표3] 평가 영역별 문항 개발 방향(안)

평가 영역	문항 개발 방향
어문 규범 및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등.</li> <li>• 단독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맥락 속에서 질 문항.</li> </ul>
듣기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토의, 토론, 프리젠테이션, 강의, 강연, 방송 뉴스, 대화, 대담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평가함.</li> <li>• 듣기 단독 문항, 말하기 단독 문항, 듣고 말하기 문항 등의 유형이 가능함.</li> </ul>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자료에 대한 정보 확인, 자료 해석, 비판적·창조적 고찰 능력 등을 평가함.</li> <li>•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특히 강조하여 평가함.</li> <li>• 읽기 자료는 문학 작품, 방송, 뉴스, 사진, 인터넷, 신문, 잡지, 광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li> </ul>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수집,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 등 글쓰기 과정을 고려하여 출제함.</li> <li>•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글쓰기 방식을 중시하여 평가함.</li> <li>•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함(600자 내외).</li> </ul>

여기서 이 네 개의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앞서서도 논의했듯 창의적 언어 능력, 각종 교양적 국어 지식, 다양한 문학 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4. 국어 능력 검정의 실시가 가져올 우리 생활의 변화

우리는 모두 국어를 사랑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마음만으로 국어를 발전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우리말의 진흥과 발전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제 우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자신의 국어 능력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국어상담소의 전문 인력을 통해 언어 전반에 관한 상담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어 능력은 학교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신장시켜야 할 진행형의 성격을 지닌 능력이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있듯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유롭게 학습 기회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성인을 성장이 멈춘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듯하다. 생존을 위해 혹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성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능력은 학습되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평생 동안 진행되는 학습 과정이다. OECD 프로그램의 하나인 DeSeCo(스위스 연방 통계청이 운영함)에서는 능력의 개발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기회와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있다(Gilomen, 2000).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어 능력 검정 시험 또한 국어 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평가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어 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조연할 수 있는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근래 들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각종 문화 센터의 강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독서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는 학교 교육 이후에도 평생 동안 자신의 국어 능력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언어 문제를 주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네티즌’을 ‘누리꾼’으로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이라는 표현으

로 바꾼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탄력이 넘치는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국어사전을 항상 옆에 두는 생활은 오염된 언어 표현을 스스로 교정하고 가다듬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상대방의 관점이나 생각을 배려하면서 유연하게 표현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설득하여 공감에 이르게 하는 표현 방법 등 우리의 국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상호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국어 생활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와 서로 화합하는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 5. 앞으로 남은 과제

우선,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단순 기능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모국어 능력 평가라는 점을 잊지 말자.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 평가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사실 국어 능력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 아니라 ‘모국어’ 능력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를 통한 한국적 사고 방식과 언어 문화 정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어린이는 그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사유 세계 속에서 성장하며, 거기서 고유한 사유와 행위의 토대를 얻는다고 한다. 모국어가 성장해 가는 개인의 정신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다(바이스게르버, 1994: 172-173). 따라서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우리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시험 자체만을 중시한다면, 그래서 취직을 하기 위해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려해야 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는 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국어를 가꾸고 다듬기 위해 그런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지, 평가를 위해 국어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후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기둥 없는 서까래가 되고 말 것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전통적인 국어 문화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국어 문화란 단지 지나간 시대의 언어문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힘이다. 우리 국어를 가다듬고 우리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사고와 혼, 나아가 우리의 정신을 단련시키고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도나도 정신없이 휩쓸려 들어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는 길 중 하나는 우리들의 국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국어 교육과 연계해야 하며, 나아가 정부, 사회, 학교,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는 바로 학교로, 학교 교육을 제외하고 국어 능력 신장을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서 국어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문법을 어렵고 지겨운 과목으로 여기는 한, 우리가 바라는 국어 생활은 멀리서만 존재할 것이다. 문법 교육을 위한 탐구 학습이나 문제 해결 교수·학습 방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태도’ 영역을 중요한 교육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적절한 교육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기에 국어에 대해 흥미와 즐거움과 자긍심을 가져야 그 언어 세계 속에 흠뻑 빠져 활용하고 즐기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말하자면, 최근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전공별로 취업을 위한

국어 혹은 글쓰기 강좌를 개설하고 전공별 작문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국어 교육을 실용 교육 일변도로 하고, 글쓰기도 실용문 작성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국어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설 자리를 잃거나, 전이력(轉移力) 있는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학교 급을 막론하고 모국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을 마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을 위한 국어 능력 검정의 실시를 계기로 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 이후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 적극적인 독서 교육, 토론하고 자주 글을 쓰는 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언어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국어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는 문학 작품을 읽기 위한 범국민적 움직임도 필요하다. 학교, 국어상담소, 지역 도서관,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이다. 국어 능력 검정 결과는 공신력을 갖고 각종 취업이나 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험만 치르고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면 검정 시험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약화된다.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급별 인증서는 각종 시험의 전형 자료나 자격 인정 자료, 자신의 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공무원 임용 등에 활용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공신력 있게 활용될 것이며, 국어 능력 검정 시험도 활성화될 수 있다.

## 6. 마무리

한글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세계적인 민간 연구 기관인 ‘월드워치’는 세계 언어 중 50~90% 가량이 금세기 말쯤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만이 국어를 우리의 국어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언어의 운명은 우리 노력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글의 태생 자체가 우리 조상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국어 교육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국어는 항상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그저 말하고 읽고 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국어 능력을 키우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계기로 그런 노력에 한 걸음 다가서 보자.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업이 다르더라도 온 국민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의 언어, 의사의 언어 등은 그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의 생활, 건강, 생명과 직결된 ‘우리들의 언어’다. 그 언어들에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될 때, 바람직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질적으로 의미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다.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그 동안 상호 소통되지 못했던 각 직종의 언어를 모두 우리의 언어로 만드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 | 참고 문헌 |

- 김창원(2001), ‘국어 능력 평가의 원칙과 방향’,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 연구원 설립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노명완·이형래(2005), ‘직업 문식성 연구: 9,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13호, 한국독서학회, pp.61~99.
- 민경옥(2003), ‘방송 현장에서 본 국어 교육의 필요성’, “국어교육학연구” 제18집, 국어 교육학회, pp.169~181.
- 양명희(2004),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 연구” 제20집, 한국교육학회.
- 이희수 외(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 및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외(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미숙·노국향(2001), ‘PISA 2000 읽기 평가 결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 최미숙(2004), ‘국가 수준 국어과 교육 성취도 평가의 실제와 개선 방안’, “국어 교육학연구” 제20집, 국어교육학회.
- 최미숙(2005),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평가 도구 연구: PISA 읽기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5호,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 Gilomen, H.(2000), ‘핵심 능력의 정의와 선정: 이론 및 개념적 근거 (DeSeCo)’, “OECD 국제 학업성취도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65~67.
- 바이스게르버, L.(1994), “모국어와 정신형성”, 허발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pp.172~173.